

【 해외금융뉴스: 유럽 】

Moody's, 동유럽 금융시장 리스크 증가 경고

- Moody's는 극심한 경기위축으로 인해 동유럽권의 은행시스템이 급격히 불안정해졌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과 관련이 많은 서유럽권 은행 역시 금융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유럽지역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Moody's는 동유럽권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 부동산시장 침체, 단기자본 펀드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신용등급 하향 압박은 계속하여 커져갈 것으로 분석함.
- 현재 중부권 및 동구권 유럽의 외국계 은행의 90%는 유로지역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로지역권 은행의 동유럽 지역에 대한 부실노출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로 추계됨.
 - 서유럽권의 은행 중 해외대출의 절반 정도를 동유럽권에 할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은행시스템이 특히 불안정하며,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폴란드와 크로아티아에 대해, 스칸디나비아 은행들은 발틱 국가에 대해 각각 위험 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동유럽권 투자 비중이 높은 오스트리아의 Raiffeisen and Erste Bank, 프랑스의 Societe Generale, 이탈리아의 UniCredit(Bank Austria 소유), 벨기에의 KBC는 Moody's의 발표 이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동구권 유럽의 통화가치도 최근 몇 주 동안 급격한 하락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식시장 역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 폴란드의 zloty화는 유로화에 대해 5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체코의 koruna는 3년 이래 최저를, 헝가리의 forint화는 역대이래 최저 수준을 보임.
 - 폴란드의 Prague and Warsaw주가지수는 5년 이래 최저수준이며, 헝가리의 Zagreb and Bucharist 주가지수도 수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동유럽지역 경제악화에 노출된 유로지역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는 유로화를 지난 2개월 중 최저치로 하락시킴.
- 동유럽권 통화의 가치 절하는 외화표시 부채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권 은행에게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로화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함.

(Financial Times 2/17)